

# ‘문재인’ 16번 언급 권성동 “5년 내내 정치가 경제 발목 잡아”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  
당 내홍·국회 표류 사과로 시작  
공공요금 인상 등 문 정부 탓  
연금·노동·교육 3대 개혁 과제

이어졌다. 연설에서는 ‘문재인 정부’ ‘문재인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 등 문재인 전 대통령의 이름이 총 16번 등장했다. 민주당도 12번 나왔다. ‘개혁’은 20번, ‘혁신’은 13번, ‘민생’은 9번씩 각각 나왔다. 권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았다”며 “‘오늘만 산다’ 식의 근시안적 정책, 국민을 갈라치는 분열적 정책이 바로 민생 고통의 주범”이라고 언급했다. 이 대목에서 민주당 김성환 의원이 “그런 적 없다”고 의석에서 큰소리로 항의하기도 했다. 권 원내대표는 그러나 “경제의 기본을 무시한 소득주도성장, 정치 논리가 앞선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고용시장이 얼어붙었다”며 비판을 이어갔다.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도 문재인 정부 시절 잦은 정책 변화와 ‘졸속 입법’으로 “국민은 주거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며 “주거 사다리를 되찾아 오겠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방역도 “비과학적 방역”이자 “국민 열처리 방역”이었다면서, “재난지원금 명목으로 나라 곳곳을 털어냈다”며 “국가채무 1천조(원) 시대를 열었다”고 비판했다. 전기세 등 공공요금 인상에 대해서 “그 직접적 원인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있다”고 책임을 돌렸다. 권 원내대표는 “실패한 정부의 실패한 관료는 민생 회복에 방해가 될 뿐”이라며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이른바 ‘알바기 인사’들의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아울러 2019년 ‘탈북 어민 강제 복송’과 2020년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거론하며 문재인 정부의 안보 정책을 “무능함”으로 규정했다. 권 원내대표는 21대 국회가 해결해야 할 미래 과제로 연금·노동·교육 분야 3대 개혁을 꼽았다. 권 원내대표는 연금 개혁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여야의 협치를 넘어선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조의 파업을 사례로 언급하며 “강성노조의 불법행위를 엄단해야 한다”는 원칙을 밝혔다. 그는 “교육감 직선제는 ‘교실의 정치화’라는 지적이 있다”며 사·도지사 러닝메이트제부터 임명제까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권 대행 연설 후 기자들을 만나 “많은 고민과 문제의식이 있었다고 생각하지만, 연설을 보니 국민이라는 단어가 34번, 규제라는 단어가 24번 나오는데 ‘문재인’과 ‘민주당’이라는 단어를 합치니 28번 가량 되는 것 같다”며 “여전히 남 탓을 하는 것인지 심히 걱정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원하는 통 큰 모습을 보여달라. 민심에 귀를 기울이며 성과로 입증하는 유능함을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국민의힘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마치고 동료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 안철수 “조기 전당대회 혼란만 부추겨”... 권성동 체제 지지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21일 “현 당대표의 의혹이 해소될 때까지는 ‘권성동 직무대행 체제’로 흔들림 없이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당 안팎의 위기 상황에 대한 글을 올리며 이같이 밝혔다. 안 의원은 “당 대표의 권위가 아닌 상황에서 조기 전당대회를 주장하더라도 당장 실현될 수 없으며 혼란만 부추길 뿐”이라며 “지금은 하루빨리 대한민국 국민의 복합위기를 극복할 최고사령탑인 대통령을 중심으로 당정이 모여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준석 대표의 중앙당 윤리위원회 징계 후 권성동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했지만 여전히 당내에선 차기 지도체제를 놓고 설왕설래가 오가는 가운데, 유력 당권 주자로 꼽히는 안 의원이 조기전당대회 분명한 선을 그으며 일단 ‘권성동 직대체제’에 힘을 실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안 의원은 대내외 경제 상황의 엄중함을 설명한 뒤 “그러나 우리 국민의힘은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국민들께서 연이어 승리하게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혼란에 빠져 있다”고 꼬집었다.

안 의원은 “지난 정부의 잘못된 경제 정책과 내로남불로 실망한 국민들께서 정권교체로 지난 정권을 심판하고, 새로운 정부여당에 변화를 기대하셨지만 아직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현재의 위기를 진단했다. 이어 “2024년 총선에서 승리해야만 입법부에서 정부 여당이 약속한 개혁과 민생문제 해결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다. 그것이 진정한 정권교체일 것”이라며 “당의 안정과 화합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 윤 대통령 대우조선 사태에 “불법행위 풀고 정상화하는게 국민 바람”

“청와대 복합 예술 공간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동조합 파업 사태에 대해 “빨리 불법행위를 풀고 정상화시키는 게 국민 모두가 바라는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활용 방안과 관련, “본관과 영빈관 등 청와대 공간이 국민의 복합 예술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기획해달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집무실로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대우조선 하청노조 파업이 장기

화할 조짐인데 어떻게 보고 계신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9일 출근길 문답에서 “국민이나 정부나 다 많이 기다릴 만큼 기다리지 않겠나”라며 공권력 투입을 시사한 바 있다. 이어 전날 같은 질문에는 “거기에 대해서 더 답변 안 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협상의 난관인) 손해배상소송 취하 문제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지금 말씀드릴 내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이 어떤 입장을 미리 말하면

지금 현재 상황을 풀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는 과정에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청사 집무실에서 박보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부터 부처 업무 보고를 받고 “청와대의 기존 소장 작품뿐 아니라 국내외 좋은 작품을 많이 전시해 국민이 쉽게 감상할 수 있게 해달라”며 지시했다고 부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윤 대통령은 “문제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국민의) 문화생활 접근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 민주 “연말까지 선거법 개정... 승자독식 철폐”

더불어민주당 국민통합·정치교체 추진위원회는 올 연말까지 선거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치교체 추진위는 21일 오전 국회에서 3차 회의를 열고 “연말까지 선거제도 개혁과 기득권 깨기에 집중해 논의하자”며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김 의원은 “정치교체 추진위가 구체적 선거법 개정안을 만들어 국회에 새로 설치되는 정치개혁 특별위원회(정개혁위)에서 논의하는 것”이라며 “8월까지 (법안을) 제안하고, 9~11월 의원들과 국민의 공론화를 거쳐 최종안을 만드는 것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상임고문과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단일화에 합의하면서 권력구조 개혁 및 정치개혁, 선거제도 개혁 등을 공동 추진하기로 한 바 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당시 거론된 주요 내용인 위상정당 방지를 위한 연동형 및 권역별 비례대표제, 중대선거구제 등이 선거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다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김 의원은 “선거법 개정은 단순한 정치권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가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라며 “근본적으로 정치 기득권 깨기, 승자독식 철폐를 기본 방향으로 논의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우리 의원들과 당원들이 토론할 수 있는 선거제도 개혁안을 A안, B안 정도라도 복수로 만들어 9월부터 본격적으로 토론을 진행하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정치교체 추진위는 또 오는 29일 오전 전당대회 출마 후보들과 함께 공개 토론회를 열고, 8·28 전당대회에서는 정치교체를 위한 결의를 발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모던 슬라브옥상 칼라강판 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아파트, 빌라, 원룸, 주택, 상가건물, 대형빌딩 등(슬라브 옥상) 시공

**옥상지붕공사**  
슬라브 주택, 데스리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옥상 스틸방수**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디자인 등록 제30-0934833호 제30-0949873호 특허청

**광주·전남 같이 하실 분 모십니다.**  
062)531-3530, H. 010-9229-3530

MODERN (트윈스틸) 시공 문의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201210-중-116877호 단, 환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한번쯤 생각하게 보세요!

- ☑ 허리, 엉덩이, 다리까지 아프고 저리며 통증이 있다면... **허리디스크?**
- ☑ 목을 돌려서 어깨가 아프다... **목디스크?**
- ☑ 계단 오르내리기가 힘들고, 무릎이 자주 붓는다면... **퇴행성 관절염?**
- ☑ 팔을 머리 위로 들어올리기 어려워진다... **회전근개파열?**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첨단우리병원**

대표전화 | 062) 970-6000  
전화로 MRI를 미리 예약을 하시면 1~2시간 이내에 진단 및 치료가 가능!